공짜로 세상 살 각오

(행21:17~36)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32.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공짜로 세상 살 각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을 공짜로 살아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예수님을 믿자!'는 취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웬만하면 설교를 계속 듣는 분들이라면, 또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백성을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하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 임금님이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백성들에게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라 안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리는데,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금과옥조로 여길 수 있는 어떤 좌우명, 지혜, 가르침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고, 나라 안의 모든 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힘을 합쳐서 동서고금의 성현 군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다 모으고 정리를 해서, 뺄 것 빼고 아름답게 고쳐서 12권의 책으로 편

찬을 했습니다.
그래 임금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참 잘했다,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다 읽을 수 있겠느냐, 좀 더 줄여봐라'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읽어보시고, 참 못 배운 백성들도 많은데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 백성이 없는 거예요.
책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2권의 내용을 한 권으로 함축해 놨으니 얼마나 함축적이고 어렵겠어요.
그래 완전히 줄여라,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심 끝에 임금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떻게 줄였느냐?'
책을 펴니까 한 문장 딱 쓰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동서고금의 모든 현자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다 모아서, 그 의미를 줄이고 줄여서 한 방울의 엑기스로 만들어 냈을 때, 그 모든 성현 군자들 가르침의 핵심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다는 겁니다.
참 목사님들 설교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락한 세상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성현과 군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바로 사탄의 가르침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한 번 살펴봐요.
여러분, 공짜를 바라는 마음은 도둑놈의 마음입니다, 게으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결과, 공짜를 바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아닌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기독교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이 눈 떴을 때 삶의 자리로 에덴동산을 받게 되는데, 낙원이 공짜입니다.
낙원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도둑놈의 심보요 게으르고 나태함의 결과인데, 기독교에서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낙원으로 허락을 하셨는데, 그게 공짜였다는 겁니다.
먼저 낙원을 허락해 줄 테니까 네가 살면서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타락 전에 사람은 공짜로 낙원을 얻었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너는 수고하여야 그 대가를 먹으리라, 그 대가로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바로 저주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수고하고 그 수고를 대가로 지불해야 소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공로사상입니다, 공로사상.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 공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로사상이 바로, 공짜로 사는 삶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타락 이전에 에덴을 선물로 받아서 공짜로 에덴을 삶의 현장으로 받아 살던 것이, 타락 후에 저주받은 생애로 바뀔 때에 첫 번째 그 삶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의 결과를 먹고 사는 공로적 규범이 이 저주받은 생활의 첫 번째 규범이었다는 겁니다.

마저 정리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공짜를 바랍니다, 이게 도둑놈의 심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이런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 약한 사람에게서든 아니면 불법을 자행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해 가지고 살고 있는 깡패집단 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짜를 바라는 마음 상태이고, 깡패집단에서 열심히 깡패 질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의 삶의 첫 번째 규범인 공로사상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타락한 세상에서의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고, 공로사상에 충실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짜 병이 있고 공로 병이 있는데, 둘 다 병들었다 이겁니다, 둘 다 타락한 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공짜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구원만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공짜로 살게 되는 삶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구원만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공짜로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삶의 그 습관과 잔재가 남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공로사상에 묶여서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공짜로 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저주 받았을 때의 첫 번째 규범이었던 공로 규범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려 그럴 때, 복음을 무효화시켜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지막에 읽어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드디어 바울이 성령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 그대로, 결박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부터 26절까지가 전반부이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전반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 장로와 여러 장로들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간의 3차 여행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아주 큰 근심에 가득차서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잘했다고, 훌륭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다.
근데 문제는, 네가 이방지역에 선교하러 다닐 때에 이방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유대 전통 같은 것은 이제 완전히 휴지조각

이 되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복음의 참 뜻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 아주 열심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들이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바울이 물으니까, 야고보 장로가 말하기를, 서원을 해서 정결예식을 지금 치러야 될 사람이 셋이 있는데 - 이게 구약에 서원한 사람이 지키는 나실인 법을 지키는 겁니다. - 이것을 같이 지키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그 나실인 법을 지키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이,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그런 정결의식의 일주일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다른 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치고 하고 있는 중에 소란을 보고받은 로마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체포해서, 진상을 알아보기도 전에 바울을 죽일까봐 감옥에 바울을 감금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에요?

그리스도인과 바울의 갈등, 유대인과 바울의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이면서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공로사상의 잔재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 하면, 복음 안에서 공짜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알리는 바울과, 여전히 저주받은 세상에서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세상에서 첫 번째 규범이었던 공로규범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죄악 된 습관의 잔재가 부딪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세계에서 공로규범을 따라 살았던 그런 부패된 습관의 잔재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한 게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왜 율법을 무효화 시키려고 그러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사건과 부활사건을 얘기하면, 자꾸 왜 무효화 시키고 율법과 상

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마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달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월급이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십일조를 바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잘못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공짜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세계를 아직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몰라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 요 수고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 이후 저주를 내리실 때에, 첫 번째 저주의 문장이 무엇이었냐 하면,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대가를 먹는다, 공로 규범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또 수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과 타락 후, 그리고 타락 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상태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수고에요, 타락 전에도 수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락 후에는 내가 수고한 그 대가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타락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 보니까, 똑같이 수고를 하는데 수고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고 자체가 공짜였다는 얘기입니다, 수고가 은혜라는 얘기는.

타락된 상태에서는 수고가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가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회복된 후 복음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수고자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수고 자체가 공짜에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일 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수고한 것이 공짜고 그게 은혜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수고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체가 은혜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니 또 사장이 돈을 줘요, 이것도 또 공짜에요, 이것도 은혜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자,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가에요, 그러니 월급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 당연히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요렇게 조금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쟁의를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의 시각이 열리느냐 하면, 내가 한 달 내내 직장에서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의 수고 자체가 은혜에요, 공짜에요.
그 자체가 이미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았기에 수고하는 거예요, 은총 안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게 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월급까지 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관점이 열릴까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내가 수고했는데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게 될지언정, 이게 병 중에 병이고 타락의 징표인데, 내가 수고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로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지금 직장 안에 있는 내가 2000년 전에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죽었다고 믿자마자 갑자기 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기운이 가득한 걸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을 때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죽은 자라고 나를 취급해 버립니다, 간주해 버립니다.
이때 갑자기 갈등이 가득했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바닷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은총의 바다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총의 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될 때, 그때 움직이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은총입니다,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다 공짜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나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내 노력이 없고, 내 수고가 없고,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간주를 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매 순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죽었는데 살아지고 있고, 죽었는데 수고하고 있고, 죽었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든 상황과 주어지는 모든 범사가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내가 교회에 충성했는데 왜 안 알아줄까? 내가 직장에서 이랬으니까 이 월급 당연한 거지', 이러한 공로규범이 아직 내 마음 속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은 공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채 공짜로 살아가려는 것은, 깡패집단 속의 도둑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노력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깡패 중에 열심인 깡패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오직 공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탄이 지배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가장 고차원적인 좌우명이 될 수 있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나의 여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조차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